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서점가에도 '지자제 열풍' / 정치 기류타고 10여종 출간 눈길 / '풀뿌리 민주주의' 역사·문제점 多角 해부(경향신문 11월24일 이상문기자)

● 老莊사상 다룬 책 쏟아져-「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」 「털끝에 놓인 태산을 어이할까」 등 / 우회적으로 재해석한 것 인기(중앙일보 11월 25일 정교용기자)

● 평론가 김현遺稿集 속속 출간 / 병상서 머리 쓴 마지막 작가 등 발표 / 「문학과 사회」 동료들의 회고기 특집(조선일보 11월25일)

● 어린이들 국내창작동화 좋아한다 - 어린이도서연구회서 '권하고 싶은 책' 조사 / 「몽실언니」가 가장 인기 / 외국古典 「소공녀」는 20위권에도 못 끼어(한국일보 11월26일 서화숙기자)

● 컴퓨터 모르면 정보시대 文盲-淑大·중앙학원·한맥컴퓨터 선정 참고도서 20권 / PC사용 직장인 대상 실무이용 도움 / 용어사전·프로그래밍 언어 소개책 등(서울경제신문 11월26일 신정섭기자)

● 「출판사 이름만 공백」 출판대행 '완성품판매제' 첫선-바다저작권회사 실시 두달... 판매 호조 / 기획서 번역·표지디자인까지 편집 / 출판사는 제본·인쇄 등 순수공정만 / 정가의 14% 인세형식 결제... 공동책임제로 質 향상(국민일보 11월26일 손수호기자)

● 동아출판사 도서상품권 지배주주 / 자본금 5억...출협 등 5단체 대주주 참여 / 이달 중 주식회사 설립 내년부터 가동(국민일보 11월26일)

● 노벨수상작 해적출판 연례행사 / 올해 '파스' 책 발표 한달만에 표절 3종 극성 / 말바꾸기·非文 등 저급 번역...변두리에 혈값 공급(국민일보 11월26일)

● 孫仁妍·李知珉 모녀 이색출판 화제-어머니는 한국서 「日語시집」 딸은 美서 「우리말 수필집」 / 시집 「제4無窮花」, 분단 아픔을 노래...日서 호평 / 수필집 「거꾸로 도는 시계」 고국에 대한 그리움 글에 담아(서울신문

11월27일 임영숙기자)

● 참가출판사 늘고 수준도 향상- 제 31회 한국출판문화賞 접수 마감 / 百39산서 4백48종 출품 / 어학·과학·철학분야 앞차 / 쉽게 쓴 전문서적·신생社 의욕 돋보여(한국일보 11월27일 서화숙기자)

● 한국평론의 현대문학사 자리매김 김현문학세계 재조명 본격화-계간지 특집마련·정리과교수 선집 잇따라 / 상상력의 실타래...「間主觀的 읽기」 큰 평가 / 「김현사단」 전집16권 계획, 내년 1주기 맞아 1권 발간(국민일보 11월27일 이태희기자)

● 「과학속의 인간」 밝힌 책 잇단 출간 / 사회학 철학사각서 혜택·폐해 해부 / 거대한 첨단문화에 짓눌린 인류도 진단 / 과학자 양심과 자유 바람직한 통제제기(동아일보 11월27일 양영채기자)

● 「차일드 크라프트」 한국어판 출간 부모와 함께 보는 아동용 가정교육도서(한국경제신문 11월 28일)

● 신예 3인 창작집 출간 / 임동현 「민통선사람들」 소재 독특 / 김하기·심상대 작품도 개성 넘쳐(매일경제신문 11월 28일)

● 구한말 秘史 「梅泉野錄」 日語版 번역 출간 / 16권짜리 美어린이전집 물 한국판 나와 / 적정마진 등 촉구 '서점인 결의대회' 열어(세계일보 11월28일)

● 소련·중국에 책 10만권 기증- 해외교포 책 보내기 운동 결실-24일 전달 1진 현지파견 / 우리언어 역사담은 문화서적 중심 / 사할린·연변 등 집단주거지역 선정(민주일보 11월 29일)

● 차마 못다 쓴 한마디-두 언론인, 취재현장 뒷 이야기 각각 출간 / 김건씨 「어두운 시대의 우직한 특종」 암울한 시대 사건들 조명 / 박정진씨 「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들」 문화의 실태·전망 등 다뤄(민주일보 11월 29일)

● 새벽을 여는 노동해방의 미래 예언-노동자출신 작가의 노동소설 두 편 / 왜곡된 자본질서에 맞선 노동자 삶 그려 / 테러와 음모속에서 싸워온 노동자의식(한겨레신문 11월29일 고종석기자)

● 안정효소설 국내 역수입 잇달아-장편 「은마는 오지 않는다」 재출간 / 강원도 두메산골 사람들 눈에 비친 6·25와 미군 그려 / 출세작 「하얀전쟁」 이어 두번째...미국서 탄탄한 인기(일간스포츠 11월30일 김병훈기자)

● 젊은 출판인 탈상업주의 「안팔려도 필요한 책 만든다」 / 「한국口伝설화」 「문예신서」 등 내 / 평민사·동문선, 국학탐구 앞장 / 1~2년 후에 재판...「많이 찾은 날 올것」(조선일보 11월30일 최구식기자)

● 東亞출판, 도서상품권 '지배주주'로-설립 앞둔 '도서상품권보급주식회사' / 발행방식·액면가 등 관장 / 초기 적자대책 마련이 과제(경향신문 12월1일)

● 5공회귀 / 공간기관의 출판탄압-이름만 바꾼채 부활되는 판금도서제도 / 대검·치본·서울시경 등 자체 단속지침 마련 / 사법심사의외제 이름뿐 공식기소 거의없어 / 올해 문화부 출판자료가 대검에 39종 의뢰 국감서 밝혀(한겨레신문 12월1일 조선희기자)

● 대형서점 강남상륙 / 650평 월드북센터 5일째 논현동에 개장(일간스포츠 12월1일 이건기자)

● 해방 3년새 새로운 자료 2종 동시 출간 눈길-「미군정 활동보고서」 주한미군정보일지 / 격동기 국내정세 상세하게 기록 / 건국 이면史 · '6·25' 연구 큰 도움(경향신문 12월1일 이상문기자)

● 선생님들이 쓴 「우리들의 동화」-현직교사 5명 공동창작 「뽕점부대 돌돌이」 / 진솔한 아이들 생활 꾸밈없이 그려 / 서구·기존 시각 벗고 동화의 새전형 마련(한겨레신문 12월1일 조선희기자)

● 말하듯이 풀어쓴 佛家名著-법정스님 「禪家龜鑑」 번역 「수타니파타 강론집」 펴내 / 소박하고 쉬운 말 잔잔한 감동(동아일보 12월1일)

● 蘇경제개혁 진단책 출간 활발-외국서적 번역 / 국내저서·연구논문 등 / 「본격교류 초입기...냉전시각 조정 시급」 / 정치·경제 실상 조명, 경험방안에 역점(서울경제신문 12월3일 신정섭기자)

● 「도서관행정 문화부서 총괄」-국무회의 통과된 '도서관 진흥법' / 공공·학교·특수 등 모두 관장 / 문교부와 줄다리기 일단락(한국일보 12월 3일)

● '90 출판계 10대 뉴스, 사회과학되 조·독자성향 변화 뚜렷-「출판저널」 선정 / 「쉬운 책」 붐·서점집단 휴업 등 전환기 / 상품권 부활·공공도서관 문화부 이관 큰 의미(국민일보 12월3일 손수호기자)

● 부모가 책 많이 읽으면 자녀도 독서 많이 한다-삼성생명, 초중고생 5백명 '독서성향' 조사 / 5권 이상 학

생중 35% 부모 독서광 / 청소년 34.1% 한달 평균 1권 이하(매일경제신문 12월3일)

● 김수행교수, 마르크스 「資本論」 6년만에 완역 / 전5권 출간 여주 많이 달아 이해도와 / 「북한판」도 참조... 「정치경제학 기여 기쁨」 /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분석한 책으로 평가(동아일보 12월3일 양영채기자)

● 임대료 크게 올라 휴폐업 속출-중소서점 설자리가 없다 / 1년전보다 2백18개 점포 줄어 / 발행량 증가로 대형서점은 짝퉁(매일경제신문 12월 3일 정진건기자)

● 여류문인 거센바람 소설부문 박완서 「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」 1위, 신달자 「물위를 걷는 여자」 2위-김우중 「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」 비소설 정상고수 / 노벨문학상 수상작품회복세 「뚜렷」(스포츠서울 12월3일 류창하기자)

● '90 베스트셀러 「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」 40만부 돌파 / 돌출 화제작업이 소설류 강세 / 김영사, 2위 「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」 등 6종... 產室로(국민일보 12월3일 손수호기자)

● 올 베스트셀러 「수준이하」-교보문고·종로서적 11월까지 집계 분석 / 시대문제 다룬 책 적어 / 처세술·연애 일쇄...집제도 객관성에 의문(한국일보 12월4일 서화숙기자)

● 이색건강書 2권 / 소변복용 「尿療法」·일대기 「神醫 김일훈」(내외경제신문 12월4일)

● 언론인들 취재경험담 출판 활발 / 김건씨 「어두운 시대의 우직한 특종」 등 4권 나와(서울신문 12월4일)

● 노동관련서적 쉽게 풀어써 인기 / 이야기·문답형식서 만화까지 등장 / 「재미와 함께 지식습득」 찾는 이 많아(매일경제신문 12월4일 김경자기자)

● '90 베스트셀러 「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」 「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」-종로서적·교보문고 집계 1·2위 차지 / 「세계는 넓고...」 1백16만부 팔려...「아류물」 바람 일으켜 / 억압받는 여성문제 조명...서서히 강세 「그대 아직도...」 / TV 영화화 작품 인기끌어...「철학에세이」 등 꾸준한 손길(한겨레신문 12월5일 조선희기자)

● 「도서상품권」 발행 싸고 출판·서점계 반목-새로운 독서문화창출 차질 우려 / 書廳, 출협중심의 발권회사 설립에 크게 반발 / 「주체는 우리가」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/ 해묵은 갈등도 원인...「서둘러 해결점 찾아야 서

로 이익」(세계일보 12월5일 신민형기자)

● 성수기 장편소설 출간 붐 / 하일지 「경마장 가는 길」 소재·서술방식 독특 / 「침묵의 땅」 「銀馬는 오지 않는다」 진지한 접근 눈길(내외경제신문 12월5일 남진우기자)

● 「해방전후史」 쟁점 보수시각 정리-韓昇助교수 등 연구서 2권 출간 / 「독립운동은 우익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운동」 / 「주요인사 親日문제 2분법적 접근 위험」 지적도(동아일보 12월 6일 김치수기자)

● 돈벌이 관련 책 인기 / 소점포개설 운영 각종자격증 취득에 도움 / 성공담 엮은 「재미있는 경영이야기」 등 젊은층 선호(스포츠서울 12월6일 류창하기자)

● 美서 「영문판 한국문학잡지」 나온다 / 열음사·코넬대학 제휴 내년 가을 계간지 창간 / 題名 「재두루미」... 70년대 이후 작품 번역소개(동아일보 12월6일)

● 명상書 10년 인기의 두主役 크리슈나무르티, 라즈니쉬 / 1백여종 2백만권 팔려 / 「인간의 행복·깨달음」 추구...접근법은 달라(조선일보 12월 7일 최구식기자)

● 「문화부 추천도서」 112종 결정 / 역사·문화·예술 등 8분야 나뉘 / 2억대 구입 도서관 등 배포키로(조선일보 12월7일)

●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경제·과학서적 인기 / 「작은 밀천으로 돈버는 이야기」 「시간의 역사」 등 부상 / 박완서 등 여류작가 소설강세(중앙경제신문 12월7일 김용선기자)

● 「은고지신」...문화 뿌리찾기, 민속학도서 출판 붐 / 「민중연희의 창조」 마당극·판소리 재조명 / 「한국의 만가」 상여소리속의 생사관 / 「조선여속고」 등 다양한 각도서 고찰(일간스포츠 12월7일 이건기자)

● 추천도서·베스트셀러 시카자 크다 / 문화부 112종·서점 50종...일치되는 책 단 1권뿐(일간스포츠 12월 7일)

● 山출판단지 가시권 진입-문화도시 공감대...국토개발청 확정 / 출판史上 최대役事...조합 본격 가동 / 내년중 토지매입·93년엔 착공계획(서울경제신문 12월7일 신정섭기자)

● 언론인들 현장기록 출간 붐 / 서울신문 김건 「어두운 시대의 우직한 특종」 취재현장서 부딪친 역사적 사건 기록 / 국민일보 신찬균 「한국의 만가」 전국서 채집 상여소리 796수 정리(스포츠서울 12월7일)